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4 . 1(금) 조간		
배 포 일 시	2011. 3. 31. 14:00	담당부서	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
담당과장	강승준 과장(2150-7330)	담 당 자	이재석 사무관(2150-7334)

제목: 철도 종합시험선로[Test Track] 신설 추진

- ☐ 정부는 철도 주요자재의 성능검증 및 국산화 촉진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임
- 금년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을 위한 설계비를 지원하고, 시험선로 설치는 2012~2015년간 추진 예정

<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개요 >

- 총연장 : 14.5Km (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(충북) 일대)
- 사업기간 : 2011~2015년
- 총사업비 : 2,128억원(2011년 20억원)
- 운영주체(잠정) : 한국철도시설공단(관리), 한국철도기술연구원(시험)

- ☐ 그 동안 철도용품에 대한 성능검증은 기존 열차 운행선에서 시행함에 따라 열차 안전사고, 검증시간 제약 등 애로 발생
- 열차 운행선에서 시험운행시 시험제품 성능 이상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돌발 사고의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고,
-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시간 등에만 시험이 가능함에 따라 시간 제약으로 시험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

-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시 시운전에 5년이 소요되었으며, 현재 개발중인 틸팅열차도 '07년 시운전을 시운전을 시작하여 '12년 완료 예정
- * 틸팅(Tilting)열차 : 곡선부 주행시 차체를 곡선부 내측으로 기울이도록하여 곡선부 주행속도 향상

□ 또한, 현재 국내생산차량 및 용품의 기술력은 상당부분 확보(선진국 대비 74%*)되었으나,

- 시험·인증 인프라 부족으로 상용화에 한계**가 있어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상당부분 주요자재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

*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「교통분야 기술수준조사 연구(2009년)」

** 철도용품 수요자는 제품구입 요건으로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, 시험시설 부족으로 이러한 요구조건 충족에 한계

□ 따라서,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이 완료되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철도용품 및 시스템의 국산화가 가능하고 시운전기간 단축도 기대

- 그 동안 설계·시공에 대하여 해외 기술자문 및 수입품에 의존했던 것을 현장시험으로 직접 검증이 가능하여 해외 기술자문 대체 및 국산화 가능

- 철도 R&D사업 기간단축 및 실용화 성공을 향상으로 R&D 부가가치 증대(208억원/연) 효과 기대

- 철도제품의 현장부설 시험을 전용시험선로에서 시행함으로 기존선의 철도사고 방지 등 안전성 확보 가능

- 전용 시험선로에서 시운전이 가능하여 시운전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조기 상용화 가능

□ 아울러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의 철도투자 활성화로 인해 세계철도시장 규모('09년 기준 213조원)가 급성장 중으로,

- 차량 및 철도용품의 원천기술 확보로 해외 진출 시 패키지(건설+차량+철도용품) 상품화로 국익창출 증대 기대

기획재정부 대변인

□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철도종합시험선 구축(충북 오송기지일대, 약 14km)
- 사업기간 : '11~'15(5년간)
- 총사업비 : 2,128억원('11년 20억원)
- 운영주체(잠정) : 한국철도시설공단(관리), 한국철도기술연구원(시험)

□ 추진 계획

- '11년 :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
- '12~'15년 : 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

□ 위 치 도

